

# 세계지방자치동향

- **한국** 기술을 활용한 지역형 행정의 청사진: 영월군 드론(drone) 정책
-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특화정책: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예
-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및 AI기술을 사용한 갈등 해결 노력
- **미국** 미국 공공 지원 프로그램 보험 의무 가입 제도
- **일본** 일본의 지방창생 제도 및 예산 규모 변화로 본 평가

## Global Trend

2022. 12.

제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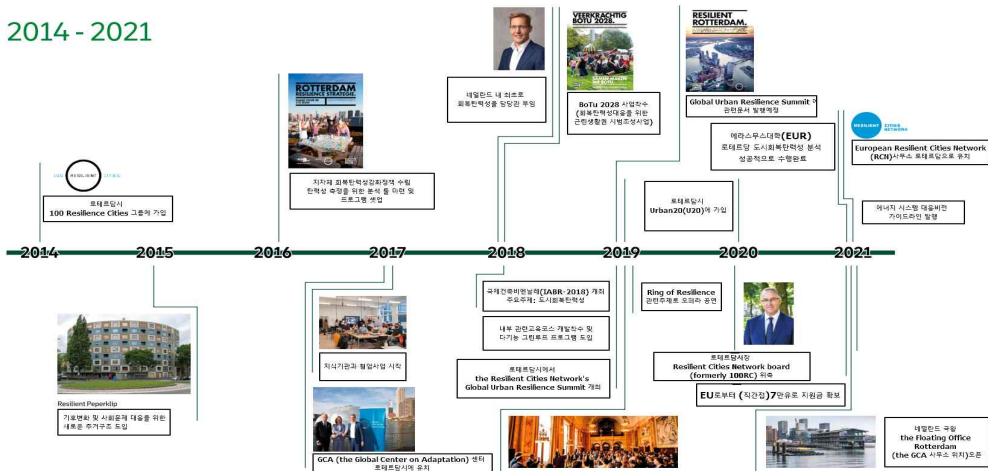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특화정책: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예

### ○ 정책 도입배경

- 2014년부터 2021까지 7년간 로테르담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정책을 7개 분야로 실행하면서 지자체의 위험요소군을 분석함(그림 1 참조)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조명되어야 할 부분과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화하여 로테르담시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소군을 6가지로 세부 분류함
- 로테르담시는 위험요소군이 지자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실행주체의 행정구역 단위를 고려하여 사업실행계획을 기획 및 조정하여 정책의 유기성 및 실효성을 추구함

2014 - 2021



출처: 저자 발제 및 재구성, 로테르담시 정책문서(2021)

| 그림 1 | 2014-2021 주요 사업추진 타임라인

### ○ 정책 개요

- 로테르담시는 2014년부터 2030년 사업실행완료를 목표로 혁신적으로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포괄적 행정시스템 도입으로 총 7가지 분야의 회복력 향상을 위해 24개의 중추(flywheel) 사업을 포함한 총 68개의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마련하였음

- 7년간의 정책 추진 경과를 중간 점검 및 분석하여 현안으로 대응해야 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대응해야 할 위험요소들을 구체화하여 6가지 군으로 분류, 대응책의 실효성을 더함(표 1 참조)

| 표 1 | 2014-2021 주요 사업 성과분석

기 사업진행기간(2014-2021) 진행된 주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5년간(2022-2027) 진행될 사업방향제시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실행과정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됨</li> <li>• 이해관계자 및 지식협업기관들과 더욱 밀접하고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함</li> <li>•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위한 보완된 정책프레임의 필요성이 제기됨</li> <li>• 정책 실행에 임하는 지자체(로테르담시정부)의 유연성 보장이 요구됨</li> <li>• 행정기관 내 사업진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li> </ul>
보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가치들을 반영한 사업분야들을 근린생활권 중심으로 1차적으로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차후 확장된 행정구역 단위로 사업분야를 확장하여 진행기로 함</li> <li>• 일자리 증가, 컨퍼런스 개최, 보조금 정책, 기관의 재정비 등 파급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부가 조치가 시행될 것임</li> <li>• 정책 실행 경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서(예산편성부서 등)간 통합 업무계획을 보완할 것임</li> </ul>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본 정책은 단순히 사회경제의 회복력 향상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수용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함을 확인함</li> <li>• 지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한 접근법은 향후 타 유관사업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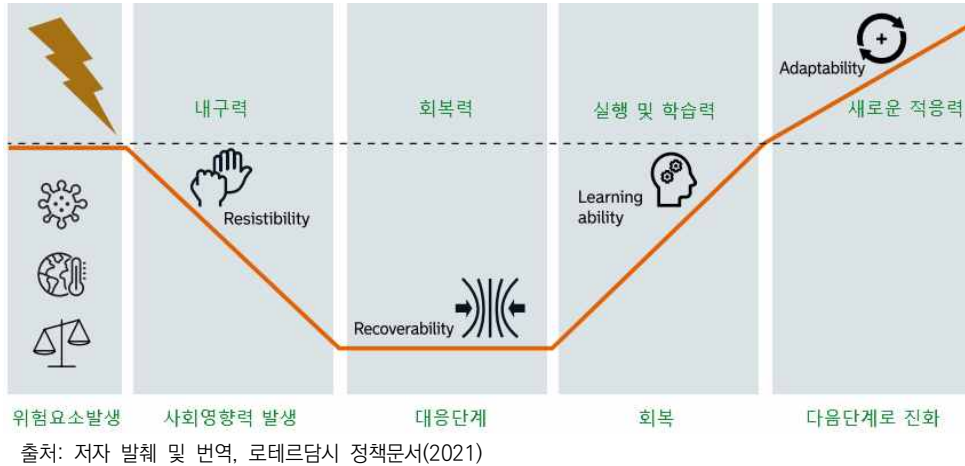
출처: 저자 발췌 및 재구성, 로테르담시 정책문서(2021)

- 위험요소군은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의 3가지 글로벌 위험요소들과 사회 내 불평등, 보건, 사이버보안위협으로 국내 사회경제를 위협하는 3가지 위험요소들로 분류됨

## ○ 지방자치회복력강화 정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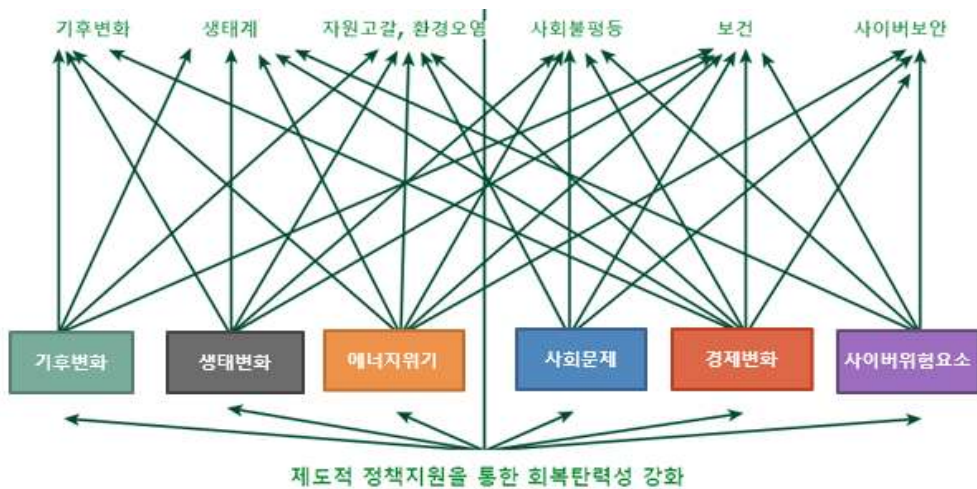
- 전 단계 정책실행에서 결과물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회복력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어느 지점까지 주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지자체에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을 4가지 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업실행주체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그림 2참조)
- 특히, 회복력은 본 정책 사업의 핵심역량으로서, 행정구역 및 기관에서 사회적, 경제적 쇼크나 각종 스트레스요인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로테르담시에서는 이와 같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4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회복력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기 위한 지원의 수준이 아닌, 사회, 경제, 주택, 환경, 국가간/도시간 협력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사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24개의 중추 사업들(세계지방자치동향 10월호 참조)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로테르담시에서는 본 정책 사업을 단순히 현 사회에서 직면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직면한 위험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경제적 면역력을 높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접근함



| 그림 2 | 지방자치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저력

- 시스템의 내구력, 회복력, 학습력 및 적응력을 지자체에서 개발해야 할 4가지 핵심 저력으로 정의하고 각 사업이 이 4가지 요소 개발에 유관성을 갖도록 함
- 6가지 위험요소군 관리를 위해 도시 회복력을 영역별로 분석하여 위기발생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연결함



출처: 저자 발체 및 재구성, 로테르담시 정책문서(2021)

| 그림 3 |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관계도

- 기후변화에 따른 회복탄력성: 4가지 위험요소(기후변화, 생태계위협요소,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공중보건)를 관리하는 항목으로, 로테르담시에서는 10년 이상 집중사업으로 두고 있으나 사업 실행 단위를 근린생활권에서 상위 단계로 조절하고 있음.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로테르담시에 사는 모든 시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생태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성: 종다양성의 위기는 생활환경의 위기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도시개발 및 재생 분야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ECHO Urban Design, 2019)
-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성: 각종 원인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사태는 비단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 및 자원접근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항목임
- 사회문제에 대한 회복탄력성: 이 항목에서는 특히 지자체 하위단계, 근린생활권 및 지역 커뮤니티에서 면밀한 각도로 정책마련을 하고 계속사업들을 확대하는 항목임. 가령, 커뮤니티 내에서 각종 자산의 기부 및 기여를 통해 지자체 내 선순환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포함함
- 경제회복탄력성: 주로 지역경제에 대한 악재, 쇼크 등을 관리하는 항목으로, 불평등의 문제,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함. 한편 경제회복탄력성은 결과적으로 종다양성 위기, 기후변화 및 보건이슈가 함께 연관되어 관리되어야 하므로 경제회복탄력성 부문에서 본 이슈들을 정책적으로 협업 관리함

## ○ 정책의 효과

- 2021년 중간평가(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의도한 정책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를 통해, 추가 정부개입(intervention)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세부화되어야 할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지역에서 당면한 위기 사안들을 관리함에 있어 본 정책에서는 위기관리를 위한 회복탄력성 정책이 커버하는 부분과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명백히 함. 간혹 ‘지속가능성’ 혹은 ‘회복탄력성’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정책사업들이 엉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여 관련 부서간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 혼선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들 또한 적절한 경로로 정책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문제에 대한 회복탄력성은 커뮤니티 단위로 추진(resilience at neighbourhood level) 하므로 개인의 분쟁 혹은 사안에 대한 정책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정책사업에 참여, 기여 혹은 기부할 수 있도록 장려함. 또한 수혜자(beneficiary)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함

- 본 정책은 팬데믹 중반시점에서 작성되었기에 헬스케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은 별도로 분리하였음. 그러나 해당부서(the Health Council)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가지(사회, 경제, 생태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 항목에서 사업을 진행함
- 이미 기 목표 사업군 내 단기적 시범사업들이 완료되었고 지속가능한 실행안(Practice)을 위해 정책의 품질 평가(Quality assessment)를 시행 및 지식이관작업(Knowledge transmission)을 이 단계에서 강화함. 이는 단순히 대학 혹은 연구소들과의 협업의 수준이 아니라 현안 및 미래 위기사항 대처를 위한 관련 지식 축적의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본 지식이관작업(Knowledge transmission)은 스펀오프와 연계되며 차세대 직업군 구성 및 취업시장구조 개선을 위함
- 또한 근린생활권(neighbourhood) 주도로 세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추사업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원하고, 특히 기여 및 기부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선순환 구조로 정립 및 재정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를 사업 시작 전, 시작 중반, 종료 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기관들을 이해관계자로 영입함. 지식기관들은 지역사회 내 연구기관뿐 아니라 해외 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경과 및 결과 분석단계에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시사점

- 지자체의 회복탄력성 증진과 관련한 정책 내에서, 위기상황 대처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책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험요소군을 구체화하여 6가지로 분류하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사업주체 행정구역 단위별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이 사회 내 상부, 중부, 하부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정책을 통해 정책 내에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을 명시하여 유관 기관간 혼선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였으며 지역민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함
- 특히, 사회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회복탄력성 부문에서는 차세대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사업에 기성세대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세대가 위기관리에 대응하고 미래 사회에 다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고취함

- 본 정책은 계속사업 내 세부사업으로서 2027년 정책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 ○ 참고자료

- Municipality of Rotterdam (2021). *Resilient Rotterdam Strategy 2022-2027*  
<https://sustainablefinancelab.nl>
- ECHO Urban Design (2019). Het Zomerhof kwartier, Rotterdam  
<https://echo-urbandesign.com>

---

### 원윤선 통신원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Stichting Economie en Cultuur(SEC); Project leader (연구분야) Urban quality assessment, Mapping urban capital, Impact driven education  
[won@eshcc.eur.nl](mailto:won@eshcc.eur.nl)